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2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이란 설전에도 시장은 낙관..미국증시 상승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이틀째 상승: 다우 +0.48%, 나스닥 +1.16%
- 미국-이란 엇갈린 목소리에도 낙관론에 무게..기술주 강세
- 소비, 고용, 제조업 지표 대체로 '예상 상회'

Summary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이틀째 상승

4월 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이란 전쟁 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이틀째 상승. 이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소 엇갈리고 있어 장 중 지수 변동성은 없지 않았지만 당장 유화적 메시지도 존재하는만큼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는 점이 시장에 안도감으로 작용해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48% 상승한 46,565.74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72% 상승한 6,575.32에 마감함. 나스닥 지수는 1.16% 상승한 21,840.95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64% 상승 마감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2.81% 하락한 24.54를 기록.

(다우 +0.48%, 나스닥 +1.16%, S&P500 +0.72%, 러셀2000 +0.64%)

이란 대통령과 이란 외무부의 엇갈린 목소리

시장은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어 4월 첫 거래일도 이란 전쟁 휴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은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총명한 인물로,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해왔다"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힘. 미국 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전일에 이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냄. 그는 미국민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대결은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며 외교적 협상을 통한 대립 해소 가능성을 시사함.

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거짓이며 근거가 없다고 반박. 실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연이어 보내고 있는 유화적 메시지가 이란 지도부 전체의 통일된 목소리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있음.

전술했듯 이란 외무부의 톤은 여전히 강경하며, 실제 이란 내 강경파들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음.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적들에게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들은 나아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인텔과 HP, 델과 엔비디아, 팔란티어와 테슬라 등의 18개 기업을 현지시각 1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합법적 타격 목표에 추가한다

고 밝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테러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대기업 등이 이 작전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

여기에 대미 협상이나 종전 조건 같은 중요한 국가 사안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아닌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는만큼 대통령의 이번 서한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 그럼에도 시장은 유화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추가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냄.

또 현지시각 4월 1일 오후 9시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향후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살아있음.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

이 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고용, 소비 관련 지표는 대체로 시장 예상을 상회.

상무부는 2월 미국 소매판매를 발표. 2월 미국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7천 383억 6천 600만 달러로 집계돼 전달에 비해 0.6%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3.7% 증가함.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 증가로 2월 수치는 시장 기대를 상회함. 앞선 1월에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1% 역성장했었음. 2월 미국인들의 소비는 스포츠용품과 가전제품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됐으며 가구와 식음료 매장 등에서의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다만 2월 수치의 호조는 연초 소득세 환급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전쟁 발발 이전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의 변화 양상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주말 고용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표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고용은 전달 대비 6만 2천명 증가. 시장 전망치 4만명 증가를 웃도는 수치로 세부적으로 상품 부문 고용이 3만명 늘었고 서비스 부문 고용도 3만 2천명 증가. ADP는 다만 "전반적인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일자리 증가가 보건/의료를 포함한 특정 산업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 고용이 8만 5천명 증가했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고용은 각각 2만명, 4천명 감소함.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을 기록해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 52.5를 상회. 세부적으로는 신규 주문지수가 53.5로 전달 대비 2.3포인트 하락했지만 생산지수가 55.1로 1.6포인트 상승. 다만 가격지수 상승과 고용지수 하락은 부담. 가격지수는 78.3으로 7.8포인트 급등해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 고용 지수는 48.7로 여전히 위축 상태에 머물렀음.

또 다른 집계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3월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3으로 예비치 52.4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전달 수치 51.6에 비해서는 개선. S&P 글로벌은 "3월의 생산 증가세는 중동 전쟁 발발에도 미국 제조업이 고무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특징종목

반도체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82% ↑

월요일 장 중 폭락했지만 전쟁 분위기 완화 가능성과 월말 수급적 효과에 힘입어 전 거래일 일제히 반등했던 반도체 관련주가 이 날도 상승세를 유지. 전일 오픈AI가 기업가치 8,520억 달러를 기반으로 1,220억 달러 투자를 유지했다는 소식 역시 AI 산업에 대한 여전한 기대로 읽혀 반도체주 상승 재료고 작용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3% 가까이 상승했으며 세부 종목으로는 지난주 구글 '터보퀀트' 이슈 부각에 메모리 수요 훼손에 대한 우려를 크게 반영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8.88%)가 강하게 상승.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공급이 현재 AI 발전의 핵심 병목이며 메모리 관련주 강세는 시장의 인식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 이외 AMD(+3.33%), 램 리서치(+3.91%), 샌디스크(+9.03%), 시게이트 테크놀로지(+8.0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51%), 웨스턴디지털(+10.07%) 등 관련주 전반이 상승. 인텔(+8.84%)은 사모펀드 아폴로매니지먼트에 매각했던 반도체 제조공장 지분을 2년만에 재매입하면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음을 시사한 영향으로 주가 오름폭이 컸음.

소프트웨어주 상대 약세

최근 AI 반도체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반대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주는 전일에 이어 이 날도 약세. 마이크로소프트(-0.22%)가 여타 빅테크 종목들과 달리 부진했고 오라클(-1.28%), 세일스포스(-0.23%), 인튜이트(-1.51%), 서비스나우(-0.49%), 어도비(-0.70%) 등 주요 기업 대체로 약세.

비만 치료제 관련주 희비 엇갈려

미 식품의약국(FDA)이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승인. FDA는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인 파운다요를 승인. 앞서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위고비를 출시했지만 이 경구용 위고비는 식사 시 공복 조건이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옴. 이번 일라이 릴리의 파운다요는 식사 여부와 상관없는 복용이라는 압도적 편의성을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양사간 경구용 비만약 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 일라이 릴리(+3.78%) 주가는 이 경구용 약품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지만 노보노디스크(-0.73%)는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와 경구용 약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소폭 하락. 자사 플랫폼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 판매를 시작한 힘스 앤드 허스 헬스(-4.43%)는 낙폭 확대.

우주/항공 관련주 강세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이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일론 머스크는 시장 반응 점검을 위해 이달 21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이에 더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미션인 '아르테미스 2호'가 현지시각 1일 오후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우주 항공 관련주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전일 독일 정부의 레이저 통신 기술 제공 업체 마이나릭 AG 인수 승인 소식에 급등했던 로켓 랩(+2.02%)이 이 날도 추가 상승. 이외 GE에어로스페이스(+3.14%),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4.53%) 등도 동반 상승.

에너지주 약세–금광주 강세

국제 유가가 이틀째 하락하며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인 반면 유가 하락을 악재로 반영한 에너지주는 전일에 이어 약세. 에너지 업종 낙폭은 4%에 육박. 엑슨 모빌(-5.23%), 셰브론(-4.59%), 코노코 필립스(-2.74%), EOG 리소시스(-2.87%), 옥시덴털 페트롤리엄(-4.26%).

고공행진하다 하락하는 유가와 달리 2013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낸 후 4월 초 반등하는 금값을 반영해 금광주 등 금 관련주는 강세. 뉴몬트(+5.12%), 배릭 마이닝(+3.46%), 하모니 골드 마이닝(+5.14%), 킨로스 골드(+4.91%),

이외 글로벌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4.84%), 미국 FDA가 어린이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니코틴 파우치 제품 판매 승인을 연기했다는 로이터의 보도 이후 하락.

전 거래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15.51%)는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수익성 부진, 중국 매출 전망 실망 등을 부담으로 반영해 하락.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의견 하향도 주가를 압박함.

역시 전 거래일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가정용 고급 가구 회사 RH(-19.29%)는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을 4~8%로 발표해 8.8%를 예상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하락. 전 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를 하회.

다만 토미힐피거와 캘빈 클라인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의류회사 PVH(+9.75%)는 실적 발표 이후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가격 약보합

미 국채 금리는 대체로 보합에서 혼조. 이란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여전히 양측에서 나오는 엇갈리는 신호들에 관망 심리가 작용하며 지난 이틀간 보였던 뚜렷한 하락(가격 상승)세를 멈춤. 이 날 발표된 소매판매와 제조업 지표 등이 기대 이상이었던 점도 국채 금리 추가 하락을 제한한 요인으로 풀이됨. 현지시각 1일 오후 9시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자는 심리도 국채 금리 움직임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한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0.8bp 상승한 3.80%를 기록했으며 10년물 금리도 0.2bp 제한적 상승으로 4.31%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1.2bp 하락해 4.89%를 기록.

달러화 약세..낙폭은 제한적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유가 하락과 맞물려 전거래일에 이어 약세. 다만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장 마감 이후 현지시각 오후 9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담화가 예정된만큼 이에 대한 경계감으로 장 후반 낙폭은 축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618을 기록해 전거래일 대비 0.227%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1.158달러로 0.215% 상승해 유로 강세-달러 약세를 반영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487% 상승해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강세를 반영함. 달러/원 NDF 환율 1개월물은 1,513.70원을 기록해 전거래일 서울 외환 시장 종가 대비 10원 이상 상승.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추가 하락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은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총명한 인물로,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으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를 즉각 부인했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도 호르무즈 해협을 적대적 세력에게 열지 않겠다고 강조. 그럼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일에 이어 이날도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사태가 추가 악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며 국제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 다만 현지시각 이 날 밤 9시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유가 낙폭은 후반 축소.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2% 하락한 배럴당 100.12달러에 마감. 글로벌 벤치 마크 브렌트유는 2.7% 하락.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원물은 전장 대비 6.8% 추가 급락함.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은 전일에 이어 반등세를 유지했으며 옥수수와 밀, 대두 등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하락.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